

## 傷寒論에 대한 精神醫學的 研究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신경정신과학교실

文相泰 · 辛容珪 · 具炳壽

### I. 緒 論

상한론은 후한시대 張機가 저술한 것으로 傷寒雜病論 혹은 傷寒卒病論으로도 불리는데, 크게 두가지 관점에서 파악되고 있다. 하나는, 외감성 열병의 식별과 치법을 논한 전문서라고 생각하는 견해, 즉 풍한으로 지칭되는 邪氣에 被傷된 外感性疾患에 대해서 그 證의 감별과 치법을 논한 專門書이다.

또한 辨證論治의 書라고 생각되는 견해, 즉 數種의 잡병까지 외감인 상한에 포함시켜 六經分證이라는 카테고리에서 모든 병은 포섭되어 있어서 이 서적에 포함하고 있는 전체적 의미는 傷寒一病을 논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한을 例證으로 질병 일반을 논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그런데 상한론은 陰陽寒熱表裏虛實의 분류를 통해서 병변의 성질과 부위·邪氣와 正氣의 盛衰에 관한 판단 및 질병의 발생과 발전의 법칙을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상한론은 주로 외감인 상한을 例證으로 들고 있으나 동시에 內科 전반에 걸친 잡병에 대해서 논한 것임을 알 수 있다<sup>1)</sup>.

정신의학적 접근을 위하여 저자는 증상정신병의 개념을 이용했다. 증상정신병의 정의는 첫째 急性傳染病, 熱性疾患, 代謝障礙, 內分泌障礙 등의 신체질환에 수반되고, 둘째 경증의 다양한 의식장애를 기반으로 하며, 셋째 정신장애의 경과와는 대체로 기초질환의 경과에 평행하여 기초질환이 치유되면 증상은 소실된다<sup>2)</sup>. 이러한 증상정신병은 외감성질환뿐만 아니라, 내상성질환에서도 인식될 수 있는 광범위한 개념으로서 어느 한 부분에 국한된 개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상한론이 辨證論治의 書라는 관점은 증상정신병을 유발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상한론은 그 증상에 증상정신병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정신병적인 증상이 초래되는 기전과 인식체계를 파악하여 임상으로 실용하기에 앞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 II. 本 論

#### 1. 醫學入門의 편제와 <醫學入門·傷寒>의 특징

저자는 傷寒論의 정신병적인 부분을 연구함에 있어 <醫學入門·傷寒>을 기본으로 하였다. 의학입문은 의사학적인 면에서 한국 한의학계에 미친 영향이 지대할 뿐만 아니라, <醫學入門·傷寒>은 證治위주로 분류되어 있어 정신병적인 症狀를 연구하기에 좋다. 醫學入門은 중국 明代의 穆宗 隆慶五年(1571년)에 南豐 李梴이 編輯하고, 그 십년후인 神宗 萬曆八年(1580년)·朝鮮王朝 宣祖十三年에 出刊되었다. 허준의 동의보감보다 약 31년이 앞서고 동의보감의 編纂에 있어 醫學入門의 方證이 많이 인용되고, 의사선발고시에도 虞博의 醫學正傳과 함께 入門書를 기본 과목으로 채택하였다. 朝鮮中期以後에 兩書와 함께 龔延賢의 醫學正傳, 東醫寶鑑이 한국 의학계의 四大門派를 형성하고 있다<sup>3)</sup>. 또한, 의학입문의 저술에 있어 그 문체는 賦體와 詩體의 格式에 따라 음운을 붙여 놓았는데, 안쪽 글귀와 밖에 글귀의 대를 맞추기 위해 별 뜻이 없이 문장 작성에 필요한 虛字도 많이 삽입되어 있어 문학서로써의 가치도 있어 현재까지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다. 구성에 있어 의학입문은 內集 九卷과 外集 十卷의 總十九卷

으로 撰述되었다<sup>4)</sup>.

의학입문의 상한은 장중경의 傷寒論과 百證百問歌(未詳), 活人書(朱肱著), 活人大全(未詳), 陶氏六書(陶節菴著), 王氏家寶(未詳)를 참고 하였다가 되어 있는데, 크게 六經, 五法, 正傷寒, 類傷寒의 네부분으로 대별되어 있고, 類傷寒은 다시 初證, 雜證, 變證, 瘥證, 危證, 死證, 婦人傷寒으로 나뉘어져 있다<sup>5)</sup>. 李梴은 상한序에서 겨울의 傷寒, 봄의 溫病, 여름의 熱病을 모두 상한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모두 인체의 正氣가 허한데다가 寒邪가 침입하여 생긴 병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천은 중경의 상한이론을 주 단계와 이동원이 보충하였기 때문에 금원대에 와서야 비로서 상한의 이론적 체계가 완전히 갖추어질 수 있었다고 하였다<sup>6)</sup>.

## 2. 症狀精神病的 分類

### 1) 六經病證

六經에 있어서 각 經의 병을 분류하여 보면 <表 1>과 같다. 육경병증은 육경에 소속된 臟腑經絡의 병리변화가 반영하는 각종의 임상증후를 말한다<sup>7)</sup>. 이 중 太陽病의 頭疼, 陽明病의 不眠 狂言 下血譫語 煩躁懊憹, 少陽病의 目眩 似瘧 婦人血結, 三陰病의 脈微欲寐 亡陽 등의 증상들을 증상정신병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겠다.

<表 1 - 六經病>

太陽病	頭疼 身熱 脊強(頭項背腰脊強) 熱多寒少 不大便 泉清頻數 熱結膀胱溺澀 汗多溺澀 汗後不解 汗漏不止 過經不解 蓋血發黃 喘嘔
陽明病	目痛 鼻乾 不眠 / 不惡寒而反惡熱 煩渴作嘔 津乾便鞭 狂言(正陽明) 脇滿 不大便而嘔(少陽陽明) / 瘀血發黃 下血譫語 胸煩懊憹
少陽病	耳聾 脇痛 寒熱往來 嘔 口苦 不食 目眩 似瘧 婦人血結
太陰病	腹滿自利 腹痛 咽喉不乾燥 大便不通 小便如常
少陰病	舌乾 口燥而渴 自利清水 心痛腹脹 大便閉鞭 不欲厚衣(熱入裏之深) 厥逆惡寒 欲吐不吐 腹痛自利 小便白色乾嘔 亡陽 咽痛(陰毒入臟之深) 脈微欲寐 下利 體痛 咳 嘔(水氣)
厥陰病	煩滿 囊縮 脣青 下利清穀 大汗出而厥 四肢疼 小腹拘急 乾嘔吐沫 氣衝心痛 發熱消渴 吐衄

### 2) 陰陽證

六經病證을 음증과 양증으로 분류하여 보면 三陽經病은 양증이라 하고 三陰經證은 음증할 수 있다. 陰陽二經에 모두 表裏二證이 있는 것이니, 陽證은 表와 裏가 모두 熱로만 형성되고 陰證은 表鬱한 것이 陽證같으나 裏에 들어가면 傳經과 直中의 區別이 있다. 대개 양증이란 것은 흔히 風寒暑濕에서 기인되므로 病邪가 太陽經에서 발생하고, 무릇 음증이란 흔히 飮食, 居處 및 喜怒過用관계로 기인되니 病邪가 少陰經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傷寒病에 內傷性을 兼한 것이 十이면 八九가 된다고 하였는데 <표 2>와 같다.

<表 2 - 陰陽證>

陽證	陽證之表	發熱 惡寒 清便自調 面光 聲亮 鼻息往來如常 手足溫
	陽證之裏	脣焦 舌燥 爪甲紅活 身輕易於轉側 煩渴 掀衣 揚手擲足 大便或閉或鞭 小便或赤或澀 脈浮洪數
陰證	陰證之表	無熱惡寒 面慘 聲短 鼻息往來氣冷 手足厥逆
	陰證之裏	脣紫 舌卷 爪甲青黑 身重難於轉側 不渴 引衣 臥多踰足 大便泄利 小便清白 脈細沈微

### 3) 陰極似陽, 陽極似陰

陰陽證의 極化는 “水極似火 火極似水”의 말처럼 水가 極하면 火와 흡사하고 火가 極하면 水와 흡사한 경우로 陽邪가 甚하면 厥逆이 되고, 陰邪가 甚하면 煩躁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는 <傷寒論 : 11條>의 “病人身大熱 反欲得近衣者 熱在皮膚 寒在骨髓也 ; 身大寒 反不欲近衣者 寒在皮膚 熱在骨髓也<sup>8)</sup>.”에서 말하고 있는 眞寒假熱과 假寒眞熱의 개념을 체계화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陰極似陽證의 경우에는 溫한 약물을 사용하였고, 陽極似陰證에는 瀉下, 清熱하는 약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표 3>과 같다.

<表 3 - 陰陽極證>

	陽極似陰	陰極似陽
症狀原因	陽證常: 潮熱 有汗 大便秘 小便赤 口渴 狂言 譫語 陽證甚: 發斑 嘔血 喘急 熱極: 忽然 熱伏於內 自汗 四肢厥冷(狀若陰證)	陰證常: 厥冷 吐利 不渴 靜謐 陰證甚: 咽痛 鄭聲 寒極: 忽然 火浮於外 發躁 手足擾亂(狀若陽證)

<表 3 - 陰陽極證>

	陽極似陰	陰極似陽
症狀	但身雖冷而不欲近衣 神雖昏而氣色光潤 脈必沈滑而有力	但身雖煩躁而引衣自蓋 口雖煩渴而飲水不下 脈必沈細而無力
原因		
治法	大柴胡湯下之, 白虎湯, 竹葉石膏湯	通脈四逆湯

4) 誤汗·誤下

汗下의 誤用으로 인하여 발생한 症狀의 機轉을 제시하고 있다. 즉, 邪氣의 內陷으로 인하여 熱邪가 內部에 축적되거나, 過多한 發汗으로 津液이 消盡되면 人體內部的 代謝障礙를 초래하여 懊憹, 譫語 등의 精神障礙가 유발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表 4>와 같다.

<表 4 - 誤治證>

	當汗而下	當下而汗
變證	瘀血證 懊憹證 痞氣證 結胸證	悸惕(心悸筋惕) 亡陽 譫語 厥竭(下厥上竭)
機轉	若應汗而反下滲 → 表邪乘虛內陷 → 熱蓄於裏 → 瘀血 懊憹 痞氣 結胸證	若應下而反汗之 邪無從出 津液內竭 → 動悸 亡陽 譫語 厥竭

5) 風溫·濕溫·寒濕·風濕

春季의 風溫病邪를 感受하여 발생하는 急性熱病의 한 종류로 葉天士의 溫熱論에서 “風溫者 春月受風 其氣已溫” 이라 하였다. 본병은 처음에 邪氣가 肺의 衛分에 있고, 主要症狀는 發熱, 口渴, 自汗, 惡寒, 咳嗽, 頭痛 等이다. 병세의 발전과정에서, 때로는 神昏, 譫語 등의 逆傳心包的 증후와 發斑 등증이 발현한다<sup>9)</sup>. 逆傳心包라는 말은 衛分(氣分)에서 突然 營分(心包)으로 陷入하여 神昏, 譫語 등 中樞神經系統의 기능상의 변화가 많이 발생한다. 즉, 熱邪가 深入하여 熾盛하므로 營陰이 耗損되어 뇌기능이 영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sup>10)</sup>. 또 상한론에 “太陽病 發熱而渴 不惡寒者 爲溫病. 若發汗已 身灼熱者 名曰風溫. 風溫爲病 脈陰陽俱浮 自汗出 身重 多眠睡 鼻息必鼾 語言難出.” 이라는 條文<sup>8)</sup>에서 온병의 發汗後에 身灼熱, 自汗, 身體沈重, 嗜睡, 鼾聲, 說話困難의 증후를 나타낸다고도 하였다. 의학입문에서 온병의 개념을 正傷寒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晉唐以前에는 온병이 <素問·熱論>의 “今夫熱病

者 皆傷寒之類也<sup>11)</sup>”라는 말에 근거하여 상한에 포괄되었으나, 明清代에 이르러 상한에서 벗어나 독자적 체계를 구축하였으니, 온병은 각종 熱性病의 총칭이 되고 상한은 범위가 축소되었다. 즉, 風寒邪를 感受한 상한과 風熱邪를 감수한 온병은 비록 外感疾病으로 초기에는 모두 表證이 있지만 병인의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表 5>과 같다. 濕溫에서는 心脾二經을 손상하여 두통, 妄言 등증이 발생하여 치료에 있어서도 心脾二經을 다스릴 것을 말하고 있다. 한습과 풍습에서는 특징적으로 頭汗이 발생한다. <表 6 ~ 8>

<表 5 - 風溫>

定義	太陽病 發汗 身猶灼熱者
致病	春溫氣大行 又感風邪
症狀	風傷衛 四肢緩縱不收 若癱瘓然 溫傷氣 氣昏而鼻息不利 言語蹇澁 身熱自汗 多眠
治法	治心火 肝木二經, 忌汗下鍼

<表 6 - 濕溫>

致病	濕與熱搏 兩經逆冷 甚則遍身 亦冷 胸滿 頭痛 壯熱 自汗 若再發汗 令人嘔墜 身變青色 不語 名曰重暈 必死
治法	治在心火脾土: 茯苓白朮湯 濕勝 溺澁便利者 五苓散 除濕湯 / 臟滑者 朮附湯 暑勝 壯熱 二便澁者 香薷散 六和湯 / 便閉 渴證 白虎加蒼湯

<表 7 - 寒濕>

比較	傷寒	無汗
	寒濕	寒濕相搏 而有汗 不能周身 惟在頭耳
治法	滲濕湯上之	
	帶表 五積交加散	
	裏寒 理中湯 加附子	
	寒多浮腫 朮附湯	

<表 8 - 風濕>

症狀	頭汗 身重 小便難
病理	先傷濕 而後傷風 風先上受 濕先下受 風濕相搏 風在外 而濕在內
	大汗 則其氣暴 而內邪不能出 故風去而濕存 濕流入裏 則病重 微汗則其氣緩 而內外之邪俱去 或濕證 去而風證 未去者 不久自解

治法	寒熱身痛 麻杏薤甘湯
	體痛發熱 小便不利 麻黃湯 加蒼朮
	肩背脊腰強痛者 羌活勝濕湯
	腫痛微喘 杏仁湯
	汗多 漢防己湯
	身重 難以轉側 桂枝湯 加白朮
	身重 昏迷 自汗 失音 下利不禁者 白通湯 加白朮 甘草
	身痛 小便不利者 甘草附子湯
	身重走痛者 小續命湯 去麻黃 附子
	熱而重痛 煩渴者 敗毒散 去柴胡 人參 加瓜蒌根
小便自利 及下利不止者 死	

6) 虛煩·懊憹·煩躁

虛煩은 無形의 邪熱로 인한 心煩을 指稱하며, 이때의 “虛”는 正氣虛가 아니다. 즉, “陽邪內陷 不與痰水 宿食等有形實邪相結 鬱而不伸 擾亂胸膈故也”로서 허증은 아니다. 이를 金鑑<sup>12)</sup>에서는 “未經汗吐下之類 多屬熱 謂之熱煩 已經汗吐下之類 多屬虛 謂之虛煩 懊憹者 卽心中欲吐不吐 煩擾不寧之象也”로 설명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증상의 輕重을 비교하면 “心煩<心中懊憹<煩躁”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sup>8)</sup>. 그러나, 실제로 虛煩과 懊憹와 煩躁의 개념은 혼용되어 많이 사용되어져 왔다. 상한론조문에서는 無形 邪熱이 胸膈을 內擾한 梔子豉湯을 사용하는 경우(76·22 1·228條)와 濕熱鬱蒸 擾動胸膈하여 陽明濕熱發黃을 초래하는 前兆로서의 경우(199條), 燥屎內結하여 濁熱上擾한 경우(238條), 結胸熱結 客氣動膈한 경우(134條)로 나누고 있다. <醫學入門·傷寒>에서는 虛煩證을 허증의 개념에 귀결하여 治法에 있어서도 平和之劑로써 조리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懊憹證에서는 熱氣의 소산을 주요목표로 하고 있으며, 煩躁證에서는 표리를 나누어 한도하의 처방을 사용하고, 不解할 경우에는 溫法을 사용할 것을 말하고 있다. 後代에 唐宗海가 血證論에서 말하고 있는 “火不甚而血太虛者 心中了戾不得 是爲虛煩 ; 心中懊憹者 火不得宣 ; 若煩而兼躁 手足妄動 此爲虛中夾實<sup>13)</sup>”이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하고 있다. 丹溪는 煩躁를 기혈의 관점에서 ‘煩主氣하고 躁主血하니, 肺主皮毛하므로 氣熱하면 煩하고 腎主津液하므로 血熱하면 躁’하다고 하였다.<表 9 ~ 11>

<表 9 - 虛煩>

原因	七情六慾 → 腎水虛而心火煩躁, 雜病後 → 餘熱未淨而煩, 勞役氣衰 → 火旺而煩, 陰虛 → 相火動而煩	
比較	類似證	共通點
	傷寒初證	外亦發熱
	陰虛證	惡寒
治法	竹葉石膏湯 小柴胡湯 橘皮竹茹湯 陰旦湯 單人參湯 補中益氣湯 四物湯 三白湯 溫膽湯 朱砂安神丸	
	表虛忌汗 裏虛忌下 → 平和之劑 調理. 虛煩不可太攻한데 熱去則寒起하기 때문. 若用傷寒汗下重劑 而致虛煩 重則津竭而死 輕則內消盜汗 變爲勞瘵	

<表 10 - 懊憹>

定義	心中 不自如也 比躁 更甚	
比較	結胸 : 表證 誤下 陽氣內陷 心下固硬	
	懊憹 : 胃氣空虛 客熱在膈 短氣 煩躁 微疼	
治法	成結胸者 大小陷胸湯	
	但懊憹 煩不得眠 饑不能食 頭汗出而不結胸者 梔子豉湯	
	腹脹 坐臥不安者 梔子厚朴湯 / 渴者 白虎湯	
	陽明證 下後懊憹者 內有燥糞 水氣湯	
	懊憹 小便難者 必發黃 茵陳湯	

<表 11 - 煩躁>

煩躁	煩	躁
症狀	心中懊憹欲吐之狀	手掉足動 嗜臥不安
原因	心熱	腎熱
輕重	輕	重
陰陽證	陽證	陰證
症狀	先煩而漸躁	不煩而便發躁
治法	分表裏 汗吐下治之 / 經吐下 而不解 煩躁者 亦宜溫之	
比較	煩躁	晝日不得眠 夜反安靜 身無大熱 陽虛也 - 甘草乾薑湯
	虛煩	不得眠而無間斷 爲裏熱 - 梔子豉湯主之

7) 百合病

百合病은 心肺二經의 病으로 臨床表現은 沈默少言하며, 欲睡해도 不能眠하고, 欲行해도 走行不能하며, 欲食해도 먹지 못하고, 오한발열이 있는 듯도 하고 없는 듯도 하며, 神志가 때로 不寧하고, 혹은 自言自語하기도 하며, 口苦, 尿赤, 脈數 等の 內熱에서 나타나는 증상을 동반한다. 內經의 解休證과도 유사한 증상으로 神經衰弱, 癔病, 혹은

일부 熱病의 後期虛弱證의 類이다. <表 12>와 같다.

<表 12 - 百合病>

原因	病後 未甚平復 失於調理 餘證在陽 醫反下之 以攻陰 餘證在陰 醫反汗之 以攻陽
症狀	百脈一宗 各不得解 無復經絡傳次 似寒又無寒 似熱又無熱 欲食不能食 欲臥不能臥 欲行不能行 有時 又或強健 但能腫臥 不能行 口作苦味 藥入即吐 有如邪祟
治法	百合爲主 以其能和百脈也 分汗吐下後 加減 及陶氏柴胡百合湯
	渴者 瓜蒌牡蠣湯 又百合洗法 洗後 淡食將養 勿用鹹攻
	頭痛者 六十日愈
	頭不痛者 四十日愈
	頭眩者 二十日愈

### 8) 痰證

痰이란 체내의 비생리적인 체액의 총칭이며, 이에 대하여 생리적인 체액을 津液이라고 한다. 체액의 變調란, 신체내에서의 수분대사장애를 뜻하는 것으로서, 대사기능이 건전하여 수분의 吸收, 排泄, 分配, 循行이 순조로우면 별 문제가 없지만, 어떤 원인으로 하여 지장을 받으면 分泌 및 排泄의 異常, 分配의 異常으로 수분의 偏在나 停滯에 의한 분포의 불균형, 순환의 不調 등으로 조직액의 過不足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체액의 변조는 불필요한 체액의 貯溜를 초래하게 되는데 그 성질이 비생리적인 것으로 변화하게 되어 세포나 조직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병적인 변화까지 일으키게 된다. 예를 들면,心に 痰阻되면 心血이 不暢하여 心悸, 煩悶 등이 발생되고 痰迷心竅하거나 痰阻 腦絡하면 神昏, 痴呆 癲證이 발생한다. 痰火擾心하면 狂亂이 발생하고, 風動痰升하면 癰症이 발생한다. 또한 痰이 巔頂을 侵犯하게 되면 暈厥, 昏冒를 발생하고 痰氣交阻하게 되면 梅核氣 등의 病證을 發生하게 되는데<sup>14)</sup><表 13>과 같다.

<表 13 - 痰證>

原因	痰은 津液이 變化한 것이니, 風傷肺 濕傷脾하여 凝濁而生한다.	
症狀	傷寒과 類似點	外證: 頭項皆和 惟寒熱
	初起: 胸膈滿悶 氣上衝咽 寸浮爲異	
治法	有熱·無熱을 나누어 有熱에는 葶蘇飲 金沸草散 柴胡半夏湯을, 無熱에는 二陳湯 溫膽湯, 通用方으로 導痰湯, 結胸證이 동반되면 鶴頂丹 枳桔二陳湯.	

### 9) 瘀血

혈액순행이 막혀서 經脈에 滯留하고 脈外로 溢出하고 臟腑器官과 조직간에 어혈이 정체되게 된다. 어혈이 생성된 이후에 邪熱과 瘀血이 互結하여 “以致血并於下 氣并於上”하기 때문에 神志가 昏亂하여 善忘을 유발시키는데 <表 14>와 같다.

<表 14 - 瘀血>

原因	[當汗而不汗 津液內滲, 不當汗而汗 津液內竭, 利小便過多] → 血熱 化爲惡瘀	
	[其人 素有跌撲閃挫, 善思 善鬱, 過食煎炒] → 血熱 瘀滯	
症狀	蓄於上焦	衄血 善忘 甚則昏迷 良久乃甦, 胸脇腹皆滿痛 譫語 昏憤 澀之血結胸證
	蓄於中焦	頭汗 作渴 發黃
	蓄於下焦	如狂 便(大便)黑 小腹急結 按之則痛
	其脈必亢滿 外證寒熱(類傷寒), 太陽證則如狂 陽明證則善忘 少陽證則寒熱似瘧	
治法	上焦에 犀角地黃湯, 中焦에 桃仁承氣湯, 下焦에 抵當湯	
	傷寒 有用承氣 大下不解 反便堅善食者 瘀血也, 凡病 日輕夜重 便是瘀血	

### 10) 頭痛·巔痛·頭眩

<內經·脈要精微論>에 의하면 頭는 精明의 府로서, 頭傾하고 視深하게 되면 이는 이미 奪神의 徵候라고 하였다<sup>11)</sup>. 상한병에 頭重하여 머리를 들지 못하는 병증이 두가지 있는데, 하나는 태양병이 重한 경우이고 하나는 陰陽易證으로서 모두 危證에 속한다. 상한병에 양맥이 不和하면 두통하고 心장의 氣가 不全해도 두통하며, 瘧病에 風이 盛하면 역시 두통을 발생하는데 모두 痾證에 속한다. 풍한이 침입하면 脈絡을 阻塞하여 氣血을 凝滯한다. 풍열이 上擾하면 氣血이 역란하게 된다. 습사가 彌滿하여 清陽을 蒙蔽하면 清竅를 阻塞하여 清陽이 상승하지 못하고 탁음은 하강하지 못하므로 두통을 일으키게 되는데 <表 15>와 같다.

<表 15 - 頭痛>

	症狀	治法
太陽表證	巔頂連兩額太陽穴者	分有汗無汗 治之
陽明表證	額痛連鼻目齒	葛根葱白湯 葱豉湯
陽明裏證	潮熱 汗多 頭痛	調胃承氣湯
陽明證	汗多 煩渴 脈洪 頭痛	白虎湯 加白芷
少陽證	頭角痛連耳 往來寒熱者	小柴胡湯

	症狀	治法
濕家	鼻塞 聲重 頭痛者	先噉水一口 勿嚙 瓜蒂散一字 入鼻內搯出黃水
痰涎頭痛		
頭痛連腦痛甚 手足俱寒者	不治	

太陰少陰脈은 頸胸에 이르러 다시 還한다. 오직 頸음만 이 上系가 獨맥과 더불어 巔頂에 모였다가 頰類로 내려 와 목에 連하여 額에 出한다. 그러므로, 厥陰頭痛에서 巔痛을 發하게 된다. 經曰 “下虛則厥 上虛則眩”이라 하니 婦人 經水適來, 陰陽易病에 眞元耗散은 모두 頭眩을 일으키 나 간혹 痰火上衝으로도 일어난다.<表 16 ~ 17>

<表 16 - 巔痛>

厥陰頭痛證	乾嘔 吐沫 卻與身熱	小建中湯(輕者), 三味蓼萸湯
易愈證	厥陰頭痛에 浮脈(陰病見陽脈)	
不治證	眞頭痛 : 脈沈 痛入泥丸 手足冷 爪甲青 / 少陰厥證 : 有左證 而連齒痛者	
陽證	頭疼 身熱 兩全者	

<表 17 - 頭眩>

原因	症狀	治法
表虛	未經汗下而眩(邪漸入裏 表邪虛)	
傷風證	頭目俱眩(太陽併入少陽傷風)	
少陽風邪盛	時時日眩口苦	
陽明風邪	頭目善食 不惡寒	茯苓桂甘湯
裏虛(已經汗下而眩)	汗漏不止 心悸身搖腸鳴 或發熱	玄武湯
	虛煩 頭眩 心下痞滿 腹痛 氣上衝咽 身戰 筋惕成痠	苓桂朮甘湯

11) 鬱冒·戴陽

鬱이라는 것은 소통의 저하를 말하는 것이고, 冒라는 것은 어지러운 것을 말하는데 의학입문에서는 虛寒하거나, 血虛, 痰飲, 혹은 濕으로 인하여 발생한다고 하여 각각에 있어 溫法, 補法, 祛痰濕 등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鬱冒라는 것이 단지 사기의 鬱結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虛하여 疏通性이 저하될 경우에도 발생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또한 戴陽證은 陰陽으로 分별하여 下虛上盛한 경우의 허증과 實熱의 적체로 인한 경우로 구분하고 있다. <表 18 ~ 19>

<表 18 - 鬱冒>

定義	鬱乃氣不舒 胃乃神不清 俗謂之昏迷/ 經曰(內經)諸虛乘寒則爲厥(鬱冒不仁 言寒氣乘虛中人 如物蒙罩其首 恍惚不省人事 比之眩暈更重)		
分類	太陽少陽病	人參白虎湯 加川芎 天麻	
	吐下 虛煩 氣衝眩暈 身搖者	苓桂朮甘湯	
	少陰證	脈沈遲 面微赤 身微熱 下利清穀者 必鬱冒	理中湯 四逆湯 甘草 乾薑湯
		血虛者	人參養榮湯 加天麻
	下利止 頭眩 時時自冒者		
	太陽病 下之不愈 因復發汗 表裏俱虛 其人必冒 汗自出 則表化而愈		
因痰飲 鬱冒厥逆者	三生飲		
感濕 頭重眩暈者	芎朮除眩湯		

<表 19 - 戴陽>

陰證	症狀	病人 身微熱(裏寒) 面赤(面雖赤 而不紅活 乃下虛也) 脈反沈而遲
	治法	理中四逆 陶氏益元湯
陽證	症狀	面赤 脈洪大 腹滿 潮熱 大便不通
	治法	大柴胡湯 大承氣湯

12) 驚狂

本證은 心虛煩躁證에 비해 한층 발전된 心陽虛證의 전 개라 할 수 있다. <傷寒論 : 112條>에서 “傷寒脈浮 醫以火迫劫之 亡陽 必驚狂 起臥不安者 桂枝去芍藥加蜀漆牡蠣龍骨求逆湯主之<sup>8)</sup>.”라 하여 誤治의 결과 心陽이 극도로 虛損을 입어 유발된 亡陽으로 표현하고 있다. 心陽虛인 관계로 津液이 氣化하지 못해서 응집하면 담음으로 변한다. 이 溫濁한 담음인 邪氣가 心悸한 虛狀에 편승해서 상초에 침입하면 이 또한 情操를 불안정하게 擾攘해서 정신증상을 촉발하게 되는 것이니 <表 20>과 같다.

<表 20 - 驚狂>

原因	火邪의 逆治로 된 것이니 取汗法의 잘못으로 인한다. 不當汗而用火取汗 或汗不得而用火却奪 以致火氣薰蒸 精神昏慣 肢體不寧
證治	時忽然而起 惕然而驚 嗜臥不安 若狂者 救逆湯 煩躁遺精者 桂枝龍骨牡蠣湯

13) 譫語·鄭聲

實하면 섬어하고 虛하면 鄭聲하는데, 섬어란 언어에 순서가 없고 자주 말끝을 끊는 것이고, 정성이란 鄭重하고

頻煩한 것인데 다만 한가지 말을 가지고 重言復言하는 것이다. 섬어는 환자의 意識昏迷에서 發하는 지리멸렬한 헛소리를 지칭하는데 이것은 熱邪가 항진한 결과 뇌신경에 충격적 자극의 영향에 의해 의식혼미한 위험한 증상으로 증후의 성질과 형증에서 이것을 양증이라 한다. 이 섬어는 전후와 두서가 없는 것을 큰 소리로 연발해서 실줄 모르고 계속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서 정성은 의식의 혼미에서 發하는 허망한 언어의 난발하는 성상은 섬어와 동일하나 그 形證이 聲량이 섬어에 비해서 昂亮하지 못한 저음으로 대개 동일한 어구를 반복해서 계속하는 음증을 지칭한다. 이것은 熱邪亢進이 유인이 되고 있는 섬어와는 달리 心氣의 손상을 입어서 發하는 의식의 消沈현상인 정신착란증상인데 이것은 허증에 속한다<sup>15)</sup>. <表 21~22>

<表 21 - 鄭聲>

原因	汗下後 及風溫 發汗過多 以致表虛裏竭 精氣脫而神昏舌短
症狀	脈息沈微 二便多閉 外見陰證 / 言語重復不已 聲音模糊 (如鄭衛不正之音)
治法	白虎湯 單人參湯

<表 22 - 譫語>

原因	胃熱乘心
症狀	脈來洪數 二便多閉 外見陽證閉目言平生常事 或閉目言人所未見事 或獨語 或睡中呢喃 或呻吟不已甚則狂言惡罵
治法	陽明 汗多譫語 少陰自利 譫語者 內有燥屎：調胃承氣湯 半表裏 默默不欲語 及已得汗而身和 亡陽譫語者：柴胡桂枝湯 已下 胸煩 身重 不可轉側 譫語者：柴胡龍骨牡蠣湯 錯語 獨語 呻吟者：解毒湯 單瀉心湯 或白虎湯 汗多 譫語者 風也 俟過經 乃可下 瘥後 譫語者 邪留心包也：知母麻黃湯
生死證	氣逆 下痢 厥冷 而脈反沈細者 死 身熱 脈大 聲清 氣朗 目光潤者 生

14) 動悸

심하게는 胃脘部가 悸動하여 불안한 상태에서 自主하지 못하는 경우인데, 주요원인은 水飲이 內停하여 逆上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를 張路玉은 “心悸者 築築然動 怔忡不能自安”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注家들은 誘發因자를 氣虛, 汗下後, 停飲 等に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表 23>와 같다.

<表 23 - 動悸>

定義	心胸間 客邪乘之 築築然觸動 如人將捕即任意也
原因	水停心下 頭眩身搖 厥而悸者 神氣素虛 心中空耗 不能自持者 汗下後 內虛而悸者(比之素虛 尤甚)
治法	復先定其氣 而後治其悸 先煩後悸者 爲虛：小建中湯 玄武湯 脈代者：炙甘草湯 入酒少許 / 汗後 冒眩者：桂枝甘草湯 先悸後煩者 爲熱：小柴胡湯 / 譫語 小便不利者：柴胡龍骨牡蠣湯 小便赤者：五苓散 / 喜嘔 譫語 大便難者：小柴胡湯 加大黃 或加芒硝 少許

15) 筋傷肉瞤

<素問·生氣通天論>에서 “陽氣者 精則養神 柔則養筋”이라 하였으니 陽氣는 皮毛肌肉에서 開闔의 작용을 하여 인체를 外衛하는 것이다. 그 精微한 것은 內로 오장의 神을 養하고 初出한 少陽의 柔軟한 氣와 合하여 근육을 자양한다. 그런데 津액의 耗損으로 인해 충분한 영양을 받지 못하여 오장의 기능도 원할하지 못하고, 근육도 정상적인 기능을 받지 못하여 瘳瘳를 유발하게 되는데 <表 24>와 같다.

<表 24 - 筋傷肉瞤>

原因	汗下後 津液耗竭 陽氣大虛 肉筋失養
症狀	惕然而跳 瞤然而動 久則成痿
治法	溫經養榮益胃：玄武湯 / 羸甚 去芍藥 / 熱者 去附子, 陶氏溫經益元散 汗下後 頭眩 身搖者 苓桂朮甘湯 / 心下痞滿者 枳桔湯 加茯苓
死證	汗下後 表裏俱虛 及素虛之人 微發其汗 膚間肉戰 喘促 汗出如油者

16) 如狂·發狂

狂症은 정신착란을 지칭하는 것으로 邪氣가 深入하여 熱盛血瘀하므로 마치 미친 듯한 것이다. 狂症은 瘀血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熱毒在胃하고 併入於心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如狂에는 三證이 있으니 ‘陰盛發躁 欲坐井地 如狂者, 火邪 驚傷不安 如狂者, 血滿如狂’이 그것이다.<表 25 ~ 26>

<表 25 - 如狂 屬瘀血者>

症狀	脈沈實 多澀水不噦, 睡中 忽欲起行 錯言妄語 猶知諫阻 尚可制禦
----	-----------------------------------

分類	無表證但血蓄下焦 小便自利 如狂者	
	無表裏證 脈數苦機 不大便 如狂者	
	太陽初證 熱結下焦 如狂者	血自下者 即愈 外未解者 桂枝湯, 陶氏桂苓飲 外已解 但小腹急結者 桃仁承氣湯
	挾血傳心脾者	當歸活血湯
	有太陰 身黃滿流 如狂者	五苓散

<表 26 - 發狂者>

原因	因汗下 失宜陽氣亢極 陰氣暴虛 - 熱毒在胃 併入於心
症狀	神昏不定 言動急速 妄辨妄笑 甚則登高而歌 棄衣而走 踰垣上屋 不飢不臥
治法	傷寒 四五日 身熱煩躁 不得汗 發狂者 表裏俱熱 : 三黃石膏湯 雙解散
	傷寒 六七日 壯熱胸滿 便閉 脈實數 發狂者 : 大承氣湯 加黃連
	陽毒暴盛 發狂 多乾嘔 面赤發斑 咽痛 下利黃赤 壯熱而不得汗者 : 葶藶苦酒湯
	咽痛 吐膿血者 : 陽毒升麻湯
	潮熱甚者 : 梔子仁湯
	潮熱大便閉者 : 升麻葛根湯 加大黃, 三黃湯
	發斑 不可下者 : 草龍膽一味 酒煎服
	狂走者 : 瓜蒂散 吐痰
	時行熱毒 發狂者 : 黑奴丸

17) 多眠·不眠

多眠은 嗜眠, 多寐, 嗜臥, 嗜眠, 多臥, 喜眠, 喜臥 등으로 불리고 있는데, 서양의학적으로는 突發性嗜眠症, 神經官能症, 精神疾病 및 其他中樞神經系統病變에서 볼 수 있다. <醫學入門·傷寒>에서는 陰的인 질환으로 인식하여 陽氣의 회복을 主안점으로 하고 있다. 不眠은 不寐, 失眠, 目不瞑, 不得眠, 無眠, 少寐, 少睡, 不睡, 不得臥 등으로 불리고 있는데 서양의학적으로는 神經衰弱症, 心血管系統疾病, 更年期綜合證 등에서 많이 보이고 있다. <醫學入門·傷寒>에서는 不眠의 原因을 陽的인 氣運의 過盛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여 熱邪亢盛, 痰飲, 瘀血, 陰虛陽亢의 범주로 개괄하여 치료하고 있다.<表 27~28>

<表 27 - 多眠>

原因	傷寒 傳陰則多眠
症狀	昏昏閉目者 陰主闔也, 默默不欲言者 陰主靜也
治法	太陽證 外已解而神將復者 / 胸滿 脇痛 鼻乾 得汗者 小柴胡湯 脈浮 羌活沖和湯 / 冬月 麻黃湯
	陽明 熱伏於裏 而嗜臥者 小柴胡湯
	少陰 脈沈細 自利 欲吐而渴 多眠者 四逆湯 加人參 茯苓 (益陰回陽)
	熱病 得汗後 脈沈細 身冷 初覺安靜 漸次昏沈 喜臥不省 急與四逆湯
	汗下後 酣睡者 爲正氣已復 不必藥也

<表 28 - 不眠>

定義	終夜煩擾 或晝夜惺惺不眠
分類	陽明 未經汗下 而不眠 初證 : 葛根解肌湯 / 在裏 屬心身不清者 : 大承氣湯
	已經汗下 不眠 津液乾 熱盛陰虛 爲不和也
	發汗過多 躁不得眠 欲飲水者 即愈
	脈浮而渴 小便難者 五苓散
	汗吐下後 懊憹不眠者 梔子湯
	晝夜不眠者 酸棗仁湯
	譫語 乾嘔 不眠者 解毒湯
	譫語 小便淋瀝 煩躁少睡者 白虎湯 加山梔子
	挾瘀血者 犀角地黃湯
	少陰 下利而渴 或因下後 不得眠者 豬苓湯 二三日 心煩不眠者 黃連桂枝湯 下後 陽虛 脈沈 無表證 夜靜晝煩 不得眠者 古藹附湯 或 四逆湯 加茯苓
汗多者 小建中湯	
傷寒瘵後 不眠者 陰氣未復也 梔子烏梅湯, 溫膽湯 加竹茹 虛者 十味溫膽湯 精神恍惚者 朱雀丸	

18) 陰毒·陽毒

陰毒은 양기가 暴絶한 것이고, 陽毒은 음기가 暴絶한 것으로, 陰陽氣가 偏盛한 경우에 발생하는 기능항성과 기능저하를 표현하고 있다. 陰毒에서는 鄭聲 등을 發하고, 陽毒에서는 狂亂 譫語, 甚하면 發斑 등증을 발하게 된다. 양독에는 活龍散을 內服하여 양독을 배설하고, 음독에는 破結丹을 內服하여 음독을 배설하여 양기와 음기를 회복하면 陰陽升降 營衛流行하여 자연히 大汗하면서 풀린다.<表 29 ~ 30>



<表 29 - 陰毒>

原因	三陰病深 必變爲陰毒 有初證 遽然而成者, 有誤服寒藥, 吐下後 變而成者, 蓋以房勞 損腎 生冷傷脾 內已伏陰 外又感寒致之 內外皆陰 陽氣暴絕
外證	比常陰證 厥冷吐利 不渴 靜謐 甚則咽痛 鄭聲 加以頭痛 頭汗 眼睛內痛 不欲見光 面唇指甲青黑 手背冷寒 心下結硬 臍腹築痛 身如鞭朴 外腎水冷 或便膿血 診其脈 附骨取之則有 按之則無
治法	甘草湯, 正陽散, 或 玄武湯 加人參: 陽氣復 而大汗解矣 陽氣乍復 或生煩躁者 返陰丹 復陽丹 金液丹

<表 30 - 陽毒>

原因	二陽病深 必變爲陽毒 有初得病 遽然而成者, 有經吐下 變而成者, 多因 酒麵 金石 價燥 腸胃極熱致之, 或證屬陽明 誤投溫藥 助熱爲邪 內外皆陽 陰氣暴絕故耳
症狀	比常陽證 潮汗 閉澀 滿渴 狂譫 甚則發斑 喘急 加以吐血 咽腫 兩眼如火 六脈洪大促數
治法	黑奴丸 白虎湯 三黃湯 生地芩連湯 陽毒承氣湯: 陰氣復 而大汗解矣 咽痛 及赤斑者 青黛一物 每用二錢 井水調服 或活龍散 尤妙

19) 擦後昏沈

熱傳手少陰心經하여 심화가 폐를熏蒸하므로 昏沈하는 것이다. 傷寒差後에 한열 등의 雜症이 없고, 다만 정신이 점차 昏沈하며 默默하여 말도 하지 않고 혹은 수면중에 홀로 한 두 마디씩 말을 하며 눈이 붉고 입술이 타며, 혀가 말라도 물을 마시지 않고, 稀粥을 주면 取食하고, 주지 아니하면 飲食생각이 없으며, 심하에 痞氣도 없고, 腹滿證도 없으며 大小便이 如常하고, 形貌가 醉한 것 같은 證이니 <表 31>과 같다.

<表 31 - 擦後昏沈>

原因	由汗出未徹 獨有心包絡間
症狀	擦後 半月十日 昏沈少神 錯語 妄言 或無寒熱 或寒熱似瘧 或朝夕潮煩
治法	知母地黃湯 無表邪者 陶氏導赤各半湯 大病後 喜唾痰者 理中湯 胃熱 虛煩而嘔者 竹葉石膏湯 加薑汁 從腰以下 有水腫者 牡蠣澤瀉湯 手足攣者 牛蒡根湯 遺精者 桂枝龍骨牡蠣湯 加鹿茸一錢 或十味溫膽湯 擦後 不食: 麥苓白朮散, 益元散 擦後 狂言: 益元散 加辰砂

治法	擦後 失神 及乾嘔: 柴胡百合湯
	擦後 血迷: 當歸活血湯
	擦後 腰痛: 獨活寄生湯
	擦後 聲沈: 補中益氣湯
	擦後 體瘦肌熱 或咳嗽者: 柴胡二錢 甘草五分 水煎服 擦後 陰虛 盜汗: 補陰丸

20) 陰陽易

精室이 空虛(女子는 包脈이 空虛함)하여 그 틈을 타고 상한의 餘熱이 入裏함으로써 循經하여 상충하기 때문에 “熱上衝胸 頭重不能舉 眼內生花” 등의 증후군들이 야기된다. 증후가 津虧火熾를 나타내므로 치법에 있어서도 導下陰中邪熱의 방법을 다양하고 있는데 <表 32>와 같다.

<表 32 - 陰陽易>

原因	男子新瘥 婦人與之交 而反得病 曰陽易, 婦人新瘥 男子與之交 而反得病 曰陰易
症狀	身熱 熱衝胸 頭重不能舉 眼內生花 四肢拘急 小腹腰膝皆痛 陰腫 手足攣卷 陰氣已極 邪縮入腹 痛引陰中 吐舌數寸 而脈離經者 卽死. 縱不死 自節解散 經脈緩弱 氣血骨髓空竭 恍惚 呼吸氣力轉少 不能着床 嗜臥仰人 牽引歲月
治法	燒裨散 赤衣散 蝦鼠糞湯 囊縮 腹引陰 痛欲絕者 但青竹皮 水煎服之 陰火上衝 面積如烘熱 心胸煩悶者 八物湯 竹皮逍遙散 四肢拘急 不伸者 當歸白朮湯 單乾薑 四兩 水煎溫服 汗出 手足自伸 挾痰 惡寒 嘔逆者 橘皮竹茹湯

21) 搖頭·直視

肺腎의 음허를 초래하여 안구반사가 소실되므로 直視 症狀이 발생하는 것이다.

<表 33 ~ 34>

<表 33 - 搖頭>

原因	陽脈不和則 頭爲之搖
症狀	心絕者 搖頭直視 形如燻葉 卽死
治法	瘧病 風盛則搖者 小續命湯加減 有裏病而搖者 言者爲虛 不言者爲實 如聖餅子, 芎朮湯, 芎辛湯, 二陳湯

<表 34 - 直視>

原因	衄血 發汗則直視, 血虛 發汗亦直視
症狀	直視者 反目倒窺 眼睛上騰 死證

22) 熱入血室

“晝則明了 夜則譫語 如見鬼狀”은 낮은 陽이 되고 衛氣가 外部에서 行하는데, 이때 正氣가 아직은 大虛하지 않으므로 邪熱과 血이 相結하더라도 稍減하게 되므로 精神은 清明하지만, 밤에는 血과 함께 음에 속하므로 양기가 내부를 뒤흔들게 되면 血室에 邪熱이 가중되어 마치 見鬼狀하면서 섬어를 유발한다는 의미이다. 섬어는 血熱의 衝逆하는 징후로서 君主之官이라 지칭하는 心 즉, 정신신경 중추에 자극적 영향을 입혀서 발생하는데 <表 35>와 같다.

<表 35 - 熱入血室>

症狀	傷寒 發熱 經水適來 晝則明了 夜則譫語 如見鬼狀
治法	經行 盡則熱隨血散 不治自愈 經盡熱退 身涼 胸滿如結胸 或譫語者 乃邪氣結於胸脇 按之痛者 亦謂之血結胸 宜海蛤散 桂枝紅花湯 婦人傷寒 寒熱似瘧 經水適斷者 亦名熱入血室 氣血必結 而不行 小柴胡湯, 黃龍湯 加牧丹皮 桃仁. 切忌汗下 하나 만약 見喜忘 如狂 腹滿泉清 當以瘀血法治之

23) 氣逆·氣喘·氣短

氣逆은 汗下 등의 誤治로 인하여 氣가 상초로 치밀어 오르는 것을 말하며, 氣喘은 태양양명이증이 있음을 말하여 치법에 있어서도 汗下法을 선택할 것을 말하고 있다. 氣短은 多種의 원인에 의하여 호흡이 연결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表 36>과 같다.

<表 36 - 氣逆·氣喘·氣短>

氣逆	氣自腹中 時時上衝也
	原因 有病後 虛羸少氣 欲吐氣逆者 有動氣 發汗 氣逆者
	治法 太湯 無汗 陽明 胸滿者 汗之 太湯 下之早 表邪乘虛傳裏 裏本虛者 受邪不逆 裏本實者 不肯受邪 則氣逆上衝 邪仍在表 當復汗之 厥陰 客熱 氣上衝心 此熱在裏而氣上也 下之 胸滿實者 吐之 汗下後 氣逆 眩暈者 茯苓桂朮甘草湯
	氣喘 太陽證 無汗而喘 宜汗 陽明證 汗多而喘 宜下 太陽陽明合病 胸滿而喘 惡寒者 亦只宜汗

氣喘	微喘 緣表之未解 喘滿 不惡寒者 當下 有汗後停水喘者 有汗下後喘者 有陰證 喘息 甚急者 返陰丹
	氣短 呼吸 不相接續 似喘而不搖肩 似呻吟而無痛也 原 有結胸者 有停水怔忡者 有風濕相搏者 有素弱及下後 脈微 氣虛甚者

24) 口乾·口燥·口澀

구건과 口燥는 熱이 진액을 소모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淸熱하는 藥物을 爲主로 하여 치료하고 口澀을 寒熱의 두 가지 증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表 37>과 같다.

<表 37 - 口乾·口燥·口澀>

	口乾	口燥	口澀
致病	邪熱聚胃 消耗津液	因脾胃有熱 津液涸少	
治法	汗後口乾者 玉苓散 加知母 黃栢	陽明口燥 咽乾 背惡寒 煩渴者 白虎加麥湯	陽明熱盛者 則澀熱 少陰寒證 則澀冷
	陽明口乾 熱甚口渴 背微惡寒者 白虎加麥湯	少陽 口苦 咽乾 小柴胡湯 雙解散	
	少陽證口乾者 小柴胡湯	少陰 口燥 舌乾者 承氣湯	
	瘀血證口乾 漱水不欲嚥者 桃仁承氣湯	口燥咽乾 默默不欲言者 宜以狐惑治之	

Ⅲ. 考 察

이상의 연구결과로 살펴보면, 상한은 그 전변에서 여러 가지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상한병에 內傷性을 兼한 것이 아니면 八九가 된다고 한 것을 보면 상한이 외감성 열병질환만을 말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모든 질병의 證治를 論한 證治醫學의 書라고 생각할 수 있다. 風溫, 虛煩·懊憹·煩躁, 百合病, 痰證, 瘀血, 頭痛·顛痛·頭眩, 鬱冒, 驚狂, 譫語·鄭聲, 動悸, 筋傷肉潤, 如狂·發狂, 多眠·不眠, 陰毒·陽毒, 瘧後昏沈, 陰陽易, 搖頭·直視, 熱入血室 등의 症狀들을 考察해보면 이러한 사실이 더욱 명백하여 진다.

이상의 증상들은 체액의 변조나 대사과정의 異常으로 인하여 외감성질환에 국한되어진 것은 아니며, 내상을 兼한 증상들로 인식되어 진다. 특히, 汗下의 誤用으로 인하여 발생한 症狀과 機轉을 제시하여 邪氣의 內陷으로 인하

여 熱邪가 내부에 축적되거나, 과다한 發汗으로 진액이 消盡되면 인체내부의 대사장애를 초래하여 여러 가지 精神症狀障礙가 유발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風溫에서 말하는 '熱邪가 深入하여 熾盛하므로 營陰이 耗損되어 腦機能이 영활하지 못하다.'는 것도 대사 실조로 인하여 정신증상을 유발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濕溫에서는 心脾二經을 손상하여 두통, 妄言 등증이 발생하여 치료에 있어서도 心脾二經을 다스릴 것을 말하고 있다. 한습과 풍습에서는 특징적으로 頭汗이 발생한다. '虛煩·懊惱·煩躁'에서는 인체내의 體熱調節의 실조현상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증상으로 설명되는데, 熱의 상승은 체액의 변조와 면역기능의 상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附隨의으로 생성되는 담음이나 어혈이 上升作用을 일으켜 神志變化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百合病에서 백합의 滋陰藥을 사용하여 치료하는 것을 보면 병인을 肺腎陰虛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一種의 虛煩不忍之象으로 볼 수가 있다. '頭痛·顛痛·頭眩'은 頭部に 淸陽한 기운의 소통이 원활치 못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각각의 원인에 따라서 汗·下·淸·和解法을 구사하고 있다. 驚狂에 있어서는 溫濁한 담음인 邪氣가 心悸한 虛狀에 편승해서 상초에 침입하면 이 또한 情操를 不安定하게 擾擾해서 정신증상을 촉발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鬱冒는 虛寒하거나, 血虛, 痰飲, 혹은 濕으로 인하여 발생한다고 하여 각각에 있어 溫法, 補法, 祛痰濕 등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戴陽證은 下虛上盛한 경우의 허증과 實熱의 적체로 인한 경우로 구분하고 있다. 驚狂은 心陽虛證으로 인하여 담음이 상초에 침입하여 정조를 불안정하게 하여 정신증상을 유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譫語는 환자의 의식혼미에서 發하는 지리멸렬한 헛소리를 지칭하는데 이것은 熱邪가 항진한 결과 뇌신경에 충격적 자극의 영향에 의해 의식혼미한 위험한 증상으로 증후의 성질과 형증에서 이것을 양증이라 할 수 있고, 鄭聲은 熱邪 亢進이 유인이 되고 있는 섬어와는 달리 心氣의 손상을 입어서 發하는 의식의 消沈현상인 정신착란증상으로 허증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動悸는 水飲이 內停하여 逆上하기 때문이며, 筋惕肉瞤은 진액의 耗損으로 인해 충분한 영양을 받지 못하여 오장의 기능도 원활하지 못하고, 근

육도 정상적인 기능을 받지 못하여 痙攣을 유발하게 된다고 보았다. 狂症은 어혈이나 熱毒이 心을 손상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多眠과 不眠은 음양실조현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陰陽毒은 陰陽氣가 偏盛한 경우에 발생하는 기능항상과 기능저하를 표현하고 있다. 瘵後昏沈은 熱傳手少陰心經하여 심화가 폐를 熏蒸하므로 昏沈하는 것이다. 陰陽易은 津虧火熾하여 '熱上衝胸 頭重不能舉 眼内生花' 등의 증후군들이 야기된다. 熱入血室에서 섬어는 血熱의 衝逆하는 징후로서 君主之官이라 치칭하는 心, 즉 정신신경 중추에 자극적 영향을 입혀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氣逆은 汗下 등의 誤治로 인하여 氣가 상초로 치밀어 오르는 것을 말하며, 氣喘은 태양양명이증이 있음을 말하여 치법에 있어서도 汗下法을 선택할 것을 말하고 있다. 氣短은 結胸, 停水怔忡, 風濕相搏, 素弱及下後 脈微 氣虛甚 등의 원인에 의하여 호흡이 연결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口乾과 口燥는 熱이 진액을 소모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淸熱하는 藥物을 爲主로 하여 치료하고 口涎을 한열의 두가지 증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以上的 <醫學入門·傷寒>에서의 症狀精神病은 <醫學入門·臟腑總論>에서 말하고 있는 "臟者 藏平也"에서처럼 過不足의 부조화상태를 개선하여 平한 상태를 만들 것을 목표로 하여 인체의 精氣神血의 조화 및 섭생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平한 상태란 부조화가 없는 조화의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금원사대가에서 말하고 있는 滋陰降火法, 攻下法, 溫補法, 寒涼法을 病機에 맞게 채택하고 융합하여 궁극적으로 조화의 상태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 IV. 結 論

1. <의학입문·상한>에 있어서의 정신의학적 증상들은 表裏·陰陽·虛實·寒熱의 八綱의 범주로 설명되고 있어 체계적인 의학이론으로 정립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의학입문·상한>에 있어서의 증상정신병의 치법은 汗·吐·下·和·溫·淸·補·消의 八法이 사용되어, 각종 원인들에 대하여 상응하는 치법을 택함으로써 치

료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3. 八綱과 八法은 이천이 장증경의 상한이론을 金元代의 새로운 의학사상으로 보충함으로써 상한의 이론적 체계를 향상시킨 것이다.
4. 궁극적으로 이천은 상한에서 발생하는 정신의학적 증상들은 인체내의 “不平”한 상태로 인하여 발생되는 것이므로, “不平”한 상태를 “平”한 상태로 개선하여 精氣神血의 조화를 이룰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參考文獻

1. 傷寒論概論 : 朴憲在 著, 藥業新聞社 出版局, pp.3-4, 1991.
2. 東醫精神醫學 : 黃義完 · 金知赫 編著, 現代醫學書籍社, p.333, 1987.
3. 韓國醫學史 : 金斗鍾 著, 探求堂, p.264, 1966.
4. 中國醫學史 : 洪元植 著, 東洋醫學研究院, p.259, 1988.
5. 國譯 編註醫學入門 Ⅲ : 蔡仁植 譯, 南山堂, pp.23-284, 1988.
6. 『醫學入門』의 편제분석 : 慶熙韓醫大 論文集 第22卷 第1號, p.78, 1999.
7. 傷寒論講義 : 李培生 主編,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p. 3-9, 1983.
8. 傷寒論釋講 : 崔達永編著, 大星文化社, p.21, 29, pp. 137-138, 1995.
9. 韓醫學辭典 : 金賢濟 洪元植編著, 成輔社, p.424, 1988.
10. 溫病學 : 南京中醫學院編,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27-28, 1978.
11. 素問今釋 : 王琦等 編著, 貴州人民出版社, p.156, 1981.
12. 醫宗金鑑(上) : 吳謙等 編著, 大星文化社, p.108, 1991.
13. 血證論 : 唐宗海著, 力行書局有限公司, pp.145-146, 中華民國七十三年.
14. 心-腦-神志病 辨証論治 : 張明准 等著, 醫聖堂, pp.9-10, 1988.
15. 傷寒論概論 : 朴憲在著, (株)藥業新聞, p.154, 1991.

16. 傷寒論辭典 : 劉波舟編, 一中社, p.46, 59, 212, 284, 433, pp.421-423, 573-575, 1992.
17. 精神病的中西醫結合研究 : 黃躍東, 上海醫科大學出版社, p.4, 8, 24, 1999.

=Abstract=

## The Psychiatric Study of the Sang-Han-Lon(傷寒論)

Sang-Tae Moon · Yong-Hyun Shin · Byung-Su Gu

Dept. of Neuropsychiat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 Guk University, Seoul, Korea.

This study was aimed to get the course which is caused by Neuropsychiatric symptoms in Sang-Han. Therefore this study is based on 『Euhak-Ipmun · Sang-Han』 (『醫學入門·傷寒』) classified mainly by symptoms.

The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Neuropsychiatric symptoms in 『Euhak-Ipmun · Sang-Han』 (『醫學入門·傷寒』) are explained as Pal-Gang(八綱), which shows those are settled down to a systematic oriental medical theory.

2. Pal-Bup(八法) is used in the cure of symptomatic psychoses in 『Euhak-Ipmun · Sang-Han』 (『醫學入門·傷寒』), which is intended to boost the effect of cure, choosing the respondent cure method about various causes.

3. Pal-Gang(八綱) and Pal-Bup(八法) in 『Euhak-Ipmun · Sang-Han』 (『醫學入門·傷寒』) are improved by Lee-Chun(李槌) who added Jang-Gi(張機)'s Sang Han theory and new medical thought in the ages of Geum · Won.

4. Lee-Chun(李槌) believed that Neuropsychiatric

symptoms which appeared in Sang Hang is caused by the "Unbalance(不平)". So he wanted to reach harmony of "Jeong(精), Qi(氣), Shin(神), Hyul(血)" after improving the status of "Unbalance(『不平』)" toward the status of "Balance(平)".

Key Word : Euhak-Ipmun · Sang-Han<sub>8</sub> (醫學入門 · 傷寒), Neuropsychiatric symptoms, Pal-Gang(八綱) and Pal-Bup(八法), Unbalance(不平), Jeong(精), Qi(氣), Shin(神), Hyul(血), Balance(平)